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을 통한 연애관의 변화 연구 : <공항가는 길>과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를 중심으로

김경애*, 구진희**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View of Love using Text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Kyung-Ae Kim*, Jin-Hee Ku**

Dept. of Korean Education*, Dep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Mokwo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연애를 소재로 하는 최근 드라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현대인의 연애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 반대의 서사적 지향을 지닌 드라마 두 편을 선정하여 각각 드라마 종영 후부터 1개월 기간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감도를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혼자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가정의 의미 변화가 확인되는데,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과 위안을 나눌 수 있고 개인이 행복해야 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가정을 깨뜨리는 일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의 이혼율과 이에 대한 문제도 고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하여 살핀 결과,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연애보다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연애를 위한 연애’ 곧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은 연애’를 선호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결혼에 비해 연애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이라기보다, 진정한 사랑을 전제로 결혼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트렌드 변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빅 데이터, 소셜 분석, 불륜 드라마, 기혼자의 연애, 융합 연구

Abstract In this study, change of the view of love was analyzed by big data analysis in TV drama of married person's love. Two dramas were selected for analysis with opposite theme of love story. The sympathy of audience for the one month period from the end of the drama was analyzed by text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In particular, changes in the meaning of home meaning are identified. Home is not ‘a place where a husband and wife play a social role’, but ‘a place where they can share real sympathy and one can be happy’. If individuals are not happy, they need to break their homes. In this study, the current divorce rate and the question regarding the matter should be considered. But based on Google Trends, in Korean society, interest in marriage were still higher than romance. It means that people prefer to ‘a love to get marriage’ in Korean modern society, than ‘love for love affair’. It seems to be reflection of cognition change, marriage should be based on true lov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study of trend change through social media.

Key Words : Big Data, Social Analysis, Affair Drama, Married Person's Love, Convergence Research

Received 3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Jin-Hee Ku(Mokwon University)
Email: jhku@mokwo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표

최근 빅데이터가 새로운 문화 연구의 방법론으로 떠올랐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는 전수조사(N1=all)를 의미하는 표본의 완전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의식 규명을 위한 총체적 상관관계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상관성에서 인과성으로의 방법적 전환에서 *ceteris paribus*(모든 조건이 같다면) 원칙에 의거하여 대가로 내놓았던, 즉 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방식으로 포기했던 총체성의 획득이, 인과성에서 상관성으로의 재전환을 통해 가능할 수 있”[1]게 되었다.

문화 연구가 다양한 문화 현상을 통해 집단의식을 추상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집단의식의 실체와 그 기저를 밝히는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방법은 기존 연구 방법들이 지녔던 표본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더욱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우리 삶을 규율하고 있는 다양한 의식 세계의 저변과 숨은 진실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변적 특성들을 건져 올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김기홍 [1]이 지적하듯이, 빅데이터 연구는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이해와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공헌하는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컨버전스 문화 연구로서의 의미도 획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 한국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집단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연애는 ‘개인’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관념으로서 개인의 ‘주체성’에 바탕한 개념이다. 이 말은 ‘love’라는 ‘이국의 언어감정을 번역하기 위해 계발된 단어’로서 그 근원에는 가족과 국가의 기획에 저항하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1910~1920년대 주체들의 저항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원을 지니기 때문에, 연애는 비슷한 개념인 ‘사랑’과 달리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개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으며 ‘사랑’에 비해 관계지향성이 높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남녀의 관계 및 이들 간의 사회적·개인적 위치나 위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용이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소위 ‘불륜’이라고 일컬어지는 기혼

남녀의 연애로 그 범주를 축소한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연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모하고 있다. 기혼자의 연애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회자되기는 하나, 그 실체를 살피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가령, 이전의 가정 드라마에서 외도하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다면, 현대 드라마에서는 이에 대한 현저한 변화가 확인된다. 일단 외도의 주체가 남편에서 아내로 변화했고, 꼭 가정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지도 않는다.

가정의 파괴나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혼 남녀의 연애는 미혼 남녀의 연애보다 현대 사회의 변화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물론 이는 유교적 사고에 바탕한 도덕관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거칠게 말하면, 20~30대의 취업률 하락과 맞물려 진행된 결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직장 여성의 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 사고관이 심하게 요동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다 섬세하고 정치한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 집단의 생각을 추출하여 이를 일반화하거나, 대중적 텍스트에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를 읽어봄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읽고자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아무리 정교한 설문을 만들고 표본 집단을 정치하게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기혼의 연애를 그린 드라마 두 편을 선정하고, 시청자들이 인터넷 상에 남긴 빅데이터를 전수조사하여 현대의 의식 변화를 추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기혼의 연애를 소재로 하는 최근 드라마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현대인의 집단의식을 드러내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것은 드라마가 다른 매체보다 대중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 체계를 생산하거나 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연애와 결혼에 관련된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문화 계발 효과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드라마는 기혼의 연애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작품을 선정하기에 용이하다.¹⁾

1) 김지영·김동규에 따르면 1992년~2015년까지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영된 TV드라마 중 혼외 관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최근 방영된 드라마 두 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정된 작품은 KBS에서 2016.09.21. ~ 2016.11.10.에 방영된 <공항 가는 길>과 비슷한 시기 JTBC에서 2016.10.28. ~ 2016.12.03.에 방영된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이다. 전자가 연애를 통해 가정을 깨고 새로운 선택에 이르는 이야기라면, 후자는 이를 극복하고 가정으로 편입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드라마가 정 반대의 서사적 지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감도를 분석하면 기혼의 연애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을 적절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스토리를 분석하여 이 두 서사물이 어떠한 목표와 지향을 지닌 이야기인지 알아본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현대인의 집단의식을 살펴본다. 서사분석의 경우, 미케 발(Mieke Bal)의 서사이론을,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한다.

1.2 연구사 검토

문화 연구 방법론으로서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아주 최근에 시작되었다. 김기홍의 연구[1]는 이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 오세종·김치호[3], 오세종·변정민[4]의 연구는 적용 방법을 살핀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오세종·김치호의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웹드라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연애관을 분석한 논문은 의외로 많지 않았고, 설문조사 등 제한된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연구였으므로 대상과 결과치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리서치 보고서 이기는 하지만, 윤덕환 등의 「연애경험 및 연애관 관련 인식 조사」는 다양한 연령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연애관을 추출하려는 포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5].

기혼의 연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TV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김환희 등의 연구[6]와 양옥경 등[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김지영·김동규의 연구[8]는

만 총 189편에 이른다[8]. 김지영·김동규의 연구는 기혼의 연애담을 중심사건으로 했는지 소재로 삼았는지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드라마적 변천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TV드라마 속 혼외 관계의 사회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드라마 자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의식 변화로 연결 짓는 데는 무리가 있었고, 최근의 의식 세계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기혼남녀의 연애에 대한 집단의식을 살피기 위한 문화 연구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정 반대의 서사적 지향을 지닌 드라마 두 편을 대상으로 시청자들의 공감도를 분석하여 현대 한국인의 집단의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의식 세계의 저변을 떠올려 이를 명료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소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

스마트 기기의 등장 이후, 개인의 특징, 행동양식, 선호를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소셜 분석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웹이나 블로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속에는 기존에는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니즈와 시장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9,10].

소셜 분석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수집, 해석함으로써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기술로서 소셜 미디어에 담긴 발화자의 진정성을 찾아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소셜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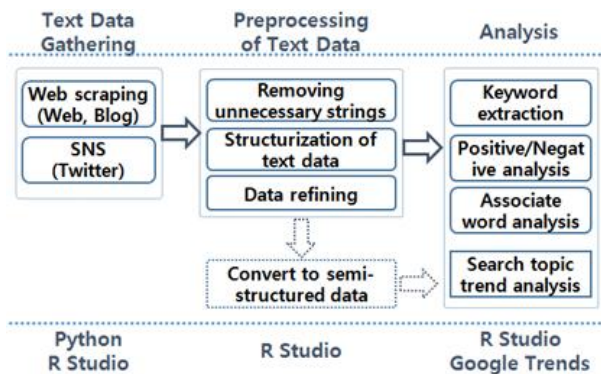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자연어(사람들이 일상에서 말하는 언어)로 구성된 비정형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기반을 둔 기술이다[12]. 텍스트 마이닝은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단어를 분해, 정제하고,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 등을 파악하여 단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다[13].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를 작성한 사

람들의 의견, 성향 등의 주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긍정인지 또는 부정인지를 분석하는 기술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라고도 한다[14,15]. 감성분석은 텍스트의 주제가 무엇인지 추출하기 보다는 그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주제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SNS가 등장한 이후에는 선거예측, 주가 예측, 영화평, 기업평판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16,17].

2.2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웹이나 블로그,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CSV(Comma Separated Values)와 같은 반정형(semi-structured) 구조로 변형시키는 과정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다 [18,19,20]. [Fig. 1]은 비정형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웹, 블로그, 트위터 등의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 Python, R Studio, Google Trends와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하였다.



[Fig. 1] Preprocessing of Text Data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먼저 불필요한 문자열을 제거해야 한다. 가령, 트윗에 포함되어 있는 @ 트윗 태그, URL, 문장 부호, 숫자, 텍스트가 너무 자주 출현하여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단어인 불용어 등을 제거하고 영어는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그런 다음,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 하는 작업으로 명사나 형용사 등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텍스트 마이닝이 필요하다[13].

2.3 텍스트 분석을 통한 연예관 추출

<공항 가는 길>과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는 가장 최근 상영되었던 혼외 관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전자는 KBS에서 2016.09.21.부터 2016.11.10.에, 후자는 JTBC에서 2016.10.28.부터 2016.12.03.에 방영되었다. 전자와 후자는 소위 ‘불륜’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스토리 전개 차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다. 먼저 <공항 가는 길>의 스토리 구조부터 살펴본다.

가능성 : 최수아와 서도우는 기혼의 남녀로 각자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만나며 위안을 받는다.

과정 : 두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이지 않은 배우자와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결과 : 최수아와 서도우가 신의를 잃은 가정을 깨뜨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한다.

미케 발의 서사이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스토리를 보다 심층의 차원에서 요약해 본 것이다. 요약에서 드러나듯, <공항 가는 길>은 최수아(김하늘)와 서도우(이상윤)가 도덕적이지 않은 배우자와 살아왔음을 깨닫고 가정을 깨는 선택을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최수아와 서도우는 삶이 힘들고 팍팍한 때 만나 상대에게 최고의 위안을 선물 받는다. 최수아는 친구 송미진과 남편 박진석이 내연의 관계였음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서도우는 양딸 애니가 죽은 맥락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도덕적이지 않은 배우자와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들은 도덕적이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깨는 선택을 한다.

주인공들이 가정을 깨는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 <공항 가는 길>의 스토리 구조가 생산하는 이념은 ‘결혼은 상대에게 신뢰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도덕성과 관계된 신뢰일 경우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관계를 지향하는 연애 개념은, 사회적 관계로서 가정의 일부인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최수아와 서도우가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안주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동

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소위 ‘불륜’이라는 말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을 깨는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상대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점은 인터넷 상에서 소위 ‘불륜’에 대한 폭넓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상대가 도덕적이지 않은 가정을 과연 지킬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전의 가정 드라마에서 외도하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도덕성이 결여된 상대를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무미하다는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기혼남녀의 혼외관계가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이후 <아내가>로 줄여 표기함)는 <공항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 전개를 보여준다. <아내가>를 요약해 본다.

가능성 : 도현우가 아내 정수연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과 정 : 도현우가 정수연의 외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보고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아내의 외도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해 헤어진다.

결 과 : 도현우가 정수연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정수연과 재결합한다.

<아내가>는 도현우(이선균)가 외도한 아내 정수연(송지효)과 갈등하다가 결국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하고 재결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아내가>의 경우는 외도한 아내의 남편 도현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기혼의 연애가 중심사건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중심사건인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도현우는 정수연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SNS에 있는 익명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정수연과 지선우의 외도를 현장에서 잡은 도현우는 아내와 지선우에게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경악한다. 그러나 점차 정수연의 외도가 자신의 관심 부족과 소통 결여 때문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한다. 그러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기억이 도현우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한다. 한편, 정수연은 지선우에게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어졌음을 느끼고 자신이 과오를 저질렀

음을 후회한다. 상대방의 빈자리가 곧 사랑이 있었던 곳이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가정을 회복한다.

이런 점에서 <아내가>의 스토리 구조는 가정 내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이 드라마는 결혼생활 중 한 번쯤은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져보려고”(http://tv.jtbc.joins.com/plan/pr10010433)했다는 기획 의도에도 일부 드러난다. 따라서 <아내가>는 가정의 회복과 소중함을 일깨울 것을 목표로 한 드라마로 볼 수 있다.

스토리 구조를 통해 살핀 바와 같이, <공항 가는 길>과 <아내가>는 혼외의 연애를 그린 목표와 맥락이 서로 다르다. 서도우가 최수아에게 주었던 것은 팍팍한 삶에서의 위안이었다. 지선우가 정수연에게 주었던 것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히 ‘정수연’으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상대를 필요로 한 강도와 깊이가 달랐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해소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공항 가는 길>의 경우, 최수아와 서도우는 도덕성이 결여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 부부는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행복을 주는 존재여야 함을 이야기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드라마가 ‘아름답게 그러도 결국은 불륜이다.’, ‘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응원하고 싶다.’, ‘불륜을 운명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같다.’, ‘안 될 일인데 자꾸 바란다.’ 등 극중 인물의 선택에 대한 공감과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며 소위 ‘불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아내가>는 가정으로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작품의 주제는 지선우의 아내가 정수연을 찾아와 나눈 대화 도중 인물의 말을 통해 발화된다. 지선우의 아내는 정수연에게 “남편이 그쪽을 만나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불륜은 로맨스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이 드라마가 생산하는 이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실상 지선우 아내의 행동은 기존 드라마에서 반복되어온 본부인의 행위와 많이 다를 것이 없다. 특히 가정주부인 지선우의 아내가 소위 ‘잘 나가는’ 그래픽 디자이너인 정수연에게 “당신 시시하네요.”라고 말한 장면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도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찾아와 그 말을 되풀이하며 남편의 외도를 용서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물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시청률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다. 전자는 9.3%, 후자는 3.4%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관심의 차이는 관련 뉴스에도 반영되었다. 관련 뉴스는 2017년 1월 2일 1시 7분 현재 <공항 가는 길>이 총 33,536건, <아내가>가 5,067건으로 조회되었는데, 공중파와 케이블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6.6배 많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시청률 추이와 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심장한 현상으로 읽을 수 있다. 가령, tvN에서 방영된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의 평균 시청률은 20.5%(닐슨코리아 제공)로 이를 공중파와 케이블의 차이로만 여길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블로그 검색에서도 공감의 차이가 일부 드러난다. 상영 종료 후 1달 후 두 작품의 관심도를 살펴본 왔는데, <공항 가는 길>이 1,377건으로 <아내가>의 158건의 8.7배에 달하고 있다.²⁾ 아래 도표에서 <아내가>의 감성 키워드 순위에 5위 ‘심심하다’, 10위 ‘재미없다’가 랭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6위의 ‘다양한’이라는 키워드도 의미 있게 읽힌다. <아내가>가 주인공들의 스토리보다 조연들의 스토리에서 더 공감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어 순위에 남자주인공(이선균)이 들어 있지 않은 점, 최윤기(김희원)-은아라(예지원) 커플이 큰 인기를 얻은 점 등이 이러한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이러한 차이는 기혼의 연애, 소위 ‘불륜’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했으며 시청자들이 이에 얼마만큼 공감했는가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감성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Table 1> Related & Sentiment keyword ranking of <The way to airport> 3,177 tweets & 1377 blogs

Related Keyword	Related Keyword	Sentiment Keyword	Sentiment Keyword
1 Drama	6 Lee Sangyoon	1 Good	6 Pretty
2 Incheon Airport	7 Kbs	2 Love	7 Pretty
3 Incheon	8 Airplane	3 An Affair	8 Wait
4 Kim Haneul	9 Jeju Island	4 Thank you	9 Do Well
5 Travel	10 Jeju	5 Love	10 flutter

<Table 2> Related & Sentiment keyword ranking of <This week, my wife is having an affair> 2,268 tweets & 158 blo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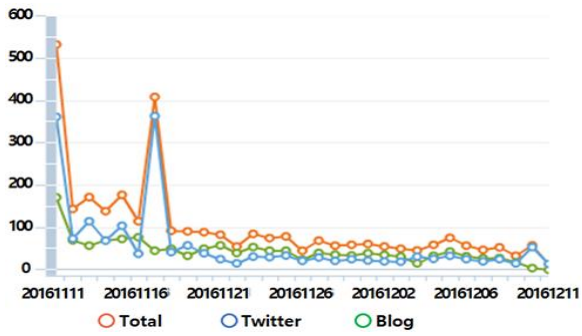
Related Keyword	Related Keyword	Sentiment Keyword	Sentiment Keyword
1 Drama	6 Base	1 necessary	6 Various
2 Holding Cell	7 Junior	2 Divorce	7 Happy
3 Korea	8 Video	3 Good	8 Good
4 Korean Drama	9 Song Ji Hyo	4 Understand	9 Expectation
5 Jtbc	10 fashion	5 Bored	10 Not funny

3.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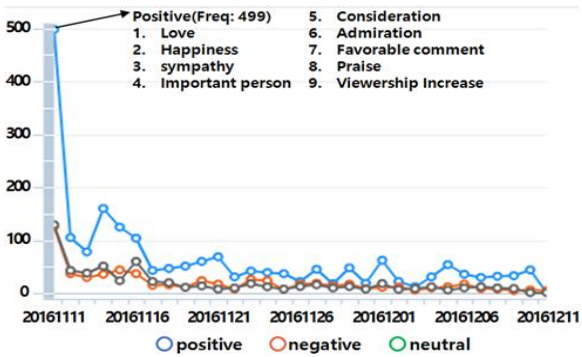
앞에서도 살핀 바 있듯이, <공항 가는 길>과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는 소위 ‘불륜’이라는 소재를 다루기는 하지만, 스토리를 구조화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공항 가는 길>은 기혼 남녀의 연애가 중심사건을 이룬다.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는 부부간의 갈등과 화합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시청자들의 공감도는 트위터와 블로그의 검색 트렌드에서 잘 드러난다.

[Fig. 2]~[Fig. 5]는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두 드라마의 검색어 추이를 살핀 결과를 예시한 것이다. 두 드라마 모두 드라마가 끝난 시점부터 살핀 것인데, <공항 가는 길>의 긍정수치가 499로 <아내가>의 120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도덕성이 결여된 가정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포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념보다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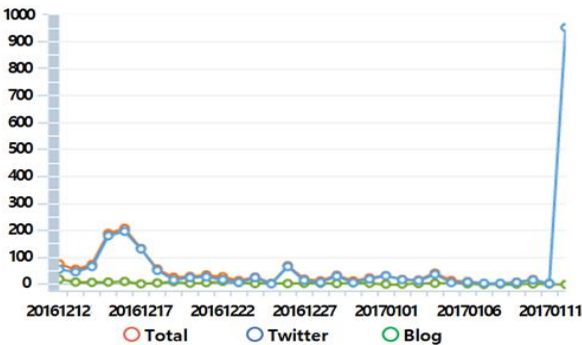
2) 트위터는 <아내가>가 2,110건으로 <공항>의 1,800건에 비해 많았지만, 부정적인 트윗이나 리트윗이 많았다고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는 감성 분석을 통해 드러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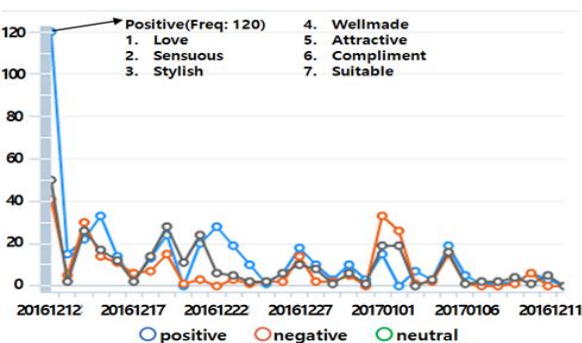
[Fig. 2] Search word trend of <The way to airport>



[Fig. 3] Positive/Negative of <The way to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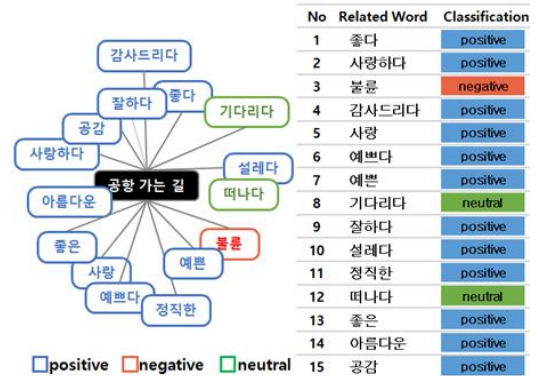


[Fig. 4] Search word trend of <This week, my wife is having an aff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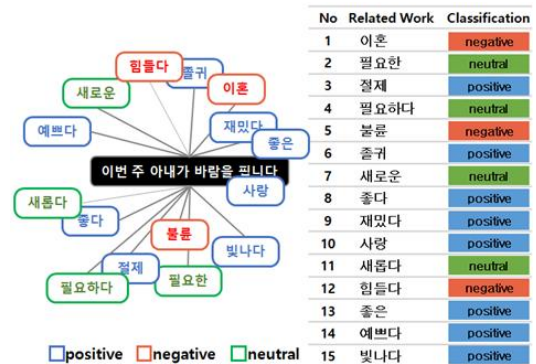
[Fig. 5] Positive/Negative of <This week, my wife is having an affair>

다음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웹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두 드라마의 감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Fig. 6] Sentiment analysis for <The way to airport>

[Fig. 6]에 드러나듯이, <공항 가는 길>의 경우 부정으로 분류된 키워드는 ‘불륜’ 하나뿐이다. <공항 가는 길>에 등장한 ‘아름답다’, ‘설레다’, ‘감사드리다’, ‘공감’ 등의 키워드는 <아내가>에서는 찾을 수 없다. <공항 가는 길>의 상황과 감정이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어필했음을 뜻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1위의 ‘정직한’이라는 키워드인데, ‘도덕성이 결여된 결혼은 유지할 수 없다’는 주제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둘은 너무 예쁘데 매번 뒤가 너무 불안해. 진짜 망 봐주고 싶다”, “그냥 이 커플 밀고 지옥 갈란다” 등의 댓글 (<http://tvcast.naver.com/v/1158292/list/95217>)은 이 드라마가 불륜이라는 소재를 극복하고 시청층의 공감을 얻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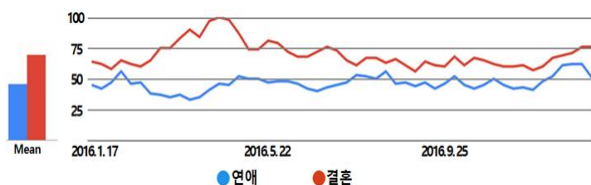


[Fig. 7] Sentiment analysis for <This week, my wife is having an affair>

반면, [Fig. 7]에서 살펴 수 있듯이, <아내가>에서는 ‘새로운’, ‘새롭다’라는 중립적 키워드가 눈에 띈다. 기혼의 연애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것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륜 소재 드라마의 주인공은 대체로 외도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였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외도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주인공으로 설정된 점이 새롭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요한’, ‘필요하다’의 중립 키워드 순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힘들다’, ‘이혼’ 등의 부정 키워드와 함께 고려해 보건대, 이혼이 필요하지만 하기는 힘든 극 중 인물의 정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절제’ 같은 긍정 키워드도 이리했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소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공감도가 낮았음을 드러낸다. 곧 아내가 외도하는 상황의 새로움은 지녔으며, 이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공감도가 낮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최윤기-은아라 커플이 재미와 공감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즐거워’나 ‘재밌다’ 등의 긍정 키워드가 도현우-정수연 주연 커플 보다는 최윤기-은아라 커플에게 적절한 키워드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혼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가정의 의미 변화가 확인된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과 위안을 나눌 수 있고 개인이 행복해야 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가정을 깨뜨리는 일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의 이혼율과 그 문제도 고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연애는 결혼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 알아본 연애와 결혼의 관심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Fig. 8] Google search topic trends analysis for love and marriage over the last 12 months



[Fig. 9] Google search topic trends analysis for love and marriage since 2004

2009년 이후 결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높은 결과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연애를 위한 연애’ 곧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은 연애’를 선호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이 서구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결혼연령의 증가, 출산율의 하락 등이 문제되고 있지만, 그것이 20~30대의 취업률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황에 따른 문제이지 결혼을 선호하지 않은 결과는 아니라 결혼이 가능하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위 ‘헬조선’이라고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임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연애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No	Related Word	Classification	No	Related Word	Classification
1	사랑	positive	9	주저하다	negative
2	신비하다	neutral	10	좋다	positive
3	방해하다	negative	11	못생긴	negative
4	좋아하다	positive	12	섹시하다	positive
5	힘들다	negative	13	웃음	positive
6	진정하다	positive	14	차별	negative
7	싫어하다	negative	15	낮다	neutral
8	피곤하다	negative			

[Fig. 10] Sentiment analysis for love and marriage

[Fig. 10]은 결혼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긍정 키워드가 1위를 차지한 반면, ‘힘들다’, ‘싫어하다’, ‘피곤하다’, ‘주저하다’ 등 부정 키워드가 많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키워드가 사회적, 경제적 정황을 반영한 것들을 알 수 있다. ‘낮다’ 같은 중립 키워드까지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키워드의 비중이 훨씬 높으므로, 사회적 경제적 정황이 결혼에 대

해 부정적인 생각을 심화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특히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섹시하다’, ‘못생긴’의 두 키워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적 정황이 반영된 키워드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매우 현저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기혼자의 연애를 소재로 하는 최근 드라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현대인의 집단인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정 반대의 서사적 지향을 지닌 드라마 두 편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감도를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 기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정을 깨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공항 가는 길>에 대한 공감도가 가정을 회복하는 <이 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기혼자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가정의 의미 변화가 확인된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과 위안을 나눌 수 있고 개인이 행복해야 하는 곳’으로 그 의미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가정을 깨뜨리는 일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의 이혼율과 그 문제도 고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글 트렌드 검색을 통해 살핀 결과,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연애보다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에 대한 높은 결과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연애를 위한 연애’ 곧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은 연애’를 선호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이 서구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REFERENCES

- [1] K. H. Kim, "Cultural Research and Big Data", 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Vol.-, No. 41, pp. 193-215, 2016.
- [2] K. A. Kim, "A Study on the Changes of a View of Love in Recent Drama: Focusing on <The Descendant of Sun> and <The Way to the air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 7, No. 6, pp. 1143-1161. 2016.
- [3] S. J. Oh, Kenneth C. H. Kim, "Webdrama Analysis and Recommendation using Text Mining and Opinion Mining Technique of Social Media", Cartoon & Animation Studies, Vol.- No. 44, pp. 285-306, 2016.
- [4] S. J. Oh, J. M. Byun, "Study of Viewer Responses and Success Factors through Big Data in Social Media - Focused on 'Unpretty Rapstar 2', Reality Survival of Female Rappers on M-net".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7, No. 2, pp. 527-551, 2015.
- [5] Embrain M. "The Research Related Recognition of a Love Experience and Love affair", Vol. 2015, No. 12, pp. 165-220, 2015.
- [6] H. H. Kim, S. Y. Lee, H. S. Kim, "Disintegration and Persuasion of Gender Discourse in TV Drama : Depiction of Divorced Women and Single Mothers", Media · Gender · Culture, Vol. 30, No. 3, pp. 5-40, 2015.
- [7] O. K. Yang, etc, "Study on Divorce Caused by Extramarital Relationship : Content Analysis on TV Drama : <Couples Clinic: Love or Wa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7 No. 3, pp. 165-197, 2005.
- [8] J. Y. Kim, D. G. Kim, "A Study on Social Transi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V Dram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30, No. 6, pp. 39-78, 2016.
- [9] H. S. Hwang, "Clustering Corporate Brands based on Opinion Mining: A Case Study of the Automobil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453-462, 2016.
- [10] G. S. Go, W. K. Jung, Y. G. Shin, S. S. Park, D. S. Jang, "A Study on Development of Patent Information Retrieval Using Textmining", Journal

-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8, pp. 3677-3688, 2011.
- [11] S. H. Bae, D. H. Kim, I. H. Kwak, Y. K. Song, "Social Experience Strategy of Big Data and SNS era. Acorn Publishing", 2012.
- [12] M. Shirota, "The Impact of Big Data. HANBIT Media", 2013.
- [13] D. H. Im, "Big data analysis using R, Free Academy", 2015.
- [14] J. K. Chang, J. S. Park, S. T. Ryoo, "Development of Korean Opinion Analysis System using Semantic Dictionary and Inverse Opinion Proces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8, pp. 3070-3075, 2010.
- [15] S. I. Choi, K. H. Choi,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research of the undergraduate orchestra club activities - A convergent aspects of statistical method and opinion mi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5-31, 2015.
- [16] J. S. Kim, "Emotion Prediction of Document using Paragraph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249-255, 2014.
- [17] M. B. Song, S. H. Lee,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Relation of Social Media & Movie industry : Focusing on Emotional Perception & audience Trend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 pp. 295-303, 2014.
- [18] B. L. Cho, D. H. Kim "A Study on the big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model for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oceeding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186-187, May, 2015.
- [19] B. T. Chun, S. H. Lee "A Study on Big Data Processing Mechanism & Applic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ftware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s, vol. 8, No. 8, pp. 73-82, 2014.
- [20] K. H. Choi, J. A. Yoo, "A reviews on the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1, pp. 77-83, 2015.

김 경 애(Kim, Kyung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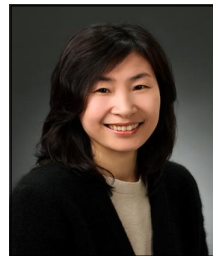


- 1998년 8월 : 숙명여자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숙명여자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우송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국어 교육, 문학 및 문화

관련 융합, 미디어 교육

· E-Mail : minerbakorea@mokwon.ac.kr

구 진 희(Ku, Jin Hee)



- 2001년 2월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공업(컴퓨터)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컴퓨터과학 교육,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클라우드 컴퓨팅

· E-Mail : jhku@mokwon.ac.kr